

# 사이버범죄 못따라가는 경찰수사

광주 검거율 매년 큰폭 하락  
디지털 증거 분석량 급증 속  
경찰청 전담인력 1~2명 불과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찰 수사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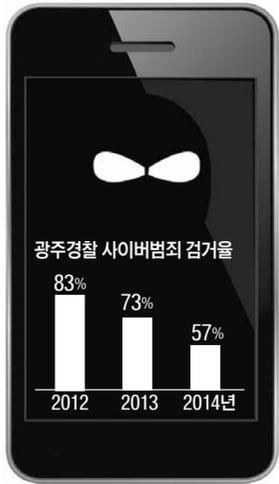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가는데도 확산을 막기는 커녕, 증거 분석에만 매달리는 일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범죄는 지난 2012년 4568건(검거율 83.25%) ▶2013년 4650건(73.24%) ▶지난해 4651건(57.02%) 등으로 증가세인 반면, 검거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전남경찰도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지난해 77.7%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거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도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가 유출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 등 본인도 모르게 유포된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2085건이나 접수됐다.

본인의도와 상관없이 유출된 개인 성행위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1404건(83.6%)에 이르지만, 한 번 유출된 자료는 웹하드,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져 100% 삭제할

수 없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버 범죄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사 인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동영상 유출 등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찰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2년 102건 ▲2013년 144건 ▲2014년 231건 등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급증했고 전남경찰도 지난해 750건으로 2012년 206건에 비해 3.64배나 증가했다.

반면, 디지털 증거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광주 1명, 전남이 2명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증거분석이 230~375건에 달해 경찰이 디지털 증거분석의 중요성을 알고도 정작 인력 확충과 전문가 양성에 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남부경찰청의 경우 최근 접수된 개인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 사건의 중요성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도 증거 분석조차도 완료하지 못한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뿐 아니라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분석이 활용되면서 전담 인력 확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의 날인 20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0여명이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장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결의대회’를 연 뒤 광주시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날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서둘러 실시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최현배기자 choi@

## 중흥건설 대표이사 사전 구속영장 청구

비자금 조성·사용처 수사

정·관계 로비 확대 여부 주목

검찰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정원주(48) 중흥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자금담당 부사장과 공모,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인 혐의(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들어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횡령,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또 광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A(57)씨를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출고 9년 지난 구급차 7월말부터 운행 금지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7월 말부터 운행할 수 없다.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TV(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

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제지정 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되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지 않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10만원 수표 위조 유통

광주북부경찰, 3명 적발

광주북부경찰청은 20일 10만 원 수표 수십 장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김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날 20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한 장을 인출한 뒤 인근 모텔에서 컬러레이저복합기(가로 40cm·세로 30cm)를 이용해 50장을 복사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위조 수표 35장을 이용해 담배·과자 등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260만 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 직원 등이 수표를 건네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과 은행 영업이 끝나 위조 감별이 힘든 심야시간대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금품 돌린 조합장 당선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영광경찰은 20일 3·11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광 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10

여명에게 생선구이 기계 또는 소고기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해마다 명절 때 해오던 의례적 행위로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승진 청탁 대가 돈받은 前 시장 측근 점유 선고

광주지법, 추징금 2000만원도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시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측근임을 과시하면서 승진 청탁을 부탁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돈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지 않았고 실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공범과 공모, “시장에게 전달해 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나주시청 사무관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임성훈 전 나주시장의 운전기사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을 맡아 ‘실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5000만원의 경우 공범을 통해 임 전 시장 아내가 남편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만취 50대, 여경에 “왜 내 몸만져”



순천소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철장형. ○~20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문모(51)씨는 지난 19일 밤 9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안경찰서 월곡지구대 앞길에서 금모(여·27)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것.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만기출소한 문씨는 H마트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이 자신을 부축해 지구대로 끌고 가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여경이) 내 몸을 만지자 기분 나빴다”고 횡설수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20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매매가 - 1억 3120만원(평당 40만원) 분할매매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매매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 전망좋은, 2013년 신축
- 방 2, 화장실 1, 거실, 베란다
- 내부깨끗,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2천만원 정도
- 매매 - 1억(대출 7천만원 가능)

문의.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장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

###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